

전남 중부권

강진만 일대 해양오염 심각

인접 해안도로 건축·생활 폐기물 방치 악취 진동

지난 22일 찾은 강진군 대구면 남호마을. 강진만에 인접한 마을주변에 생활 쓰레기들은 물론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 및 건축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이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난잡하게 널려져 있었다.

를 중심으로 5곳에 폐어선과 세면기 등이 버려져 있어 공공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또한 인근 대구면 중저, 하저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척이나 소각 등이 만연, '남도답사 일번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처럼 강진만 일대 해안가에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되면서 관광이 미지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지만 해당기관은 단속이 미미하다.

뮤지컬 '영암 아리랑' 첫박자

군은 홍보 총력전...주민들은 감사청구

영암군이 추진하는 산수 뮤지컬 '영암 아리랑'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이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 주민들의 시선이 끈적이지 않는다.

작성이 과제로 남아있는 만큼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군이 지나치게 '여론몰이'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 올 상반기 중 중앙정부 재정부유 자심사를 받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군은 지난 1월 27일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으나 기간동안 단 1개업체만 참여해 지난 21일 재공고를 했다.



봄바람 들녘 신바람 일손. 낮 기온이 영상 15도를 넘는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4일 강진군 도암면 망호마을 주민들이 찰옥수수 파종에 여념이 없다. 강진지역에서는 50ha의 면적에서 찰옥수수를 재배해 연간 213톤을 생산, 9억여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AI 매몰 가축 침출수 걱정 끝"

영암군, 대형 저장조 이용 매몰법 개선

최근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과 AI의 여파로 가축의 매몰 처분에 따른 2차 환경 오염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이 전국 최초로 대형 저장조를 이용하는 매몰방법을 개선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살균 처리해 저장했다. 군은 담양공무원을 지정해 월 2회 이상 저장조와 주변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대형 저장조를 이용한 가축 매몰방법이 매몰지 부지확보와 환경문제 등의 대안이 되도록 할 복안이다. <중부취재본부=이상규기자 lsh@>

장흥에 '피톤치드' 화장품 공장

역불산 일원 100ha

장흥에 편백나무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phytoncide)를 원료로 만든 화장품 공장이 들어선다. 24일 전남도 천연자원연구소와 장흥군에 따르면 역불산 일원 100ha에 이르는 '치유의 숲'으로 알려진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피톤치드 화장품(아토피 완화용) 공장을 설립한다.



진 '피톤치드'는 천연자원연구소가 편백나무에서 추출된 원액을 동유씨엠 측에 의뢰해 만든 시험용을 전국 아토피환자 치료용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동유씨엠 이형규 대표는 "현재 천연자원 연구소와의 연구개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장흥에 피톤치드 화장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철기자 kykim@>

전북

치매센터 위탁 '마음 사랑병원' 선정

전북도가 오는 7월 개소하는 치매관리센터의 위탁 기관으로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마음사랑병원'을 선정했다.

하고 있다. 도는 위탁 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시책설명회를 열고 조만간 직원 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군산 비응도 호텔' 결국 무산

市, 계약 해제 통보...사우디측 "법적 대응 불사"

시의회, 행정력·예산 낭비 책임 추궁

사우디 자본으로 군산 비응도에 건립하려던 호텔사업이 무산됐다. 군산시가 비응도 호텔 건립과 관련해 사우디 측과 체결한 계약을 공식 해제함에 따라 2년여간 끌어온 이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군산시는 이 부지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관광호텔'을 짓기로 하고 국내외 유명호텔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투자자 물색에 들어갔다.

"김제 고교생은 동영상 강의 공짜"

市-스카이에듀 협약...인터넷 수강권 제공

김제지역 모든 고교생이 인터넷으로 유명 입시학원의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게 돼 지역 학생의 학력수준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가 설립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진식)은 관내 통학형 공립학원 '지평선학당'의 운영체제인 스카이에듀와 협약을 체결해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게 '스카이에듀'의 동영상강의 수강권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지 만들기 삼매경. 전주시 한스타일관광과 직원들이 지난 22일 한지산업지원센터 한지 제조실에서 전통한지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화 '달빛 길어올리기' 감독 임권택) 개봉에 앞서 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영화 불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 제공>

단신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5개 업체 의향서 제출

전주시는 '전주 종합경기장'이 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국내 종합건축사 3곳 등 5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을 갖게 되지만 그 외의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배제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참여가 없어 아쉽지만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 같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만 놓고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읍시, 다문화 여성 화상상봉 연중 운영

정읍시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무료 화상상봉을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호청정마을, 대정유기농농산물 등 정읍지역 3개 정농화마을 3곳에 화상 시스템을 설치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농림수산 예산 확보 총력

남원시가 최근 농업인·생산자조직·단체 등으로부터 2012년도 농림수산업 예산을 신청받은 결과 ▲자율사업 18개분야 358억원 ▲공공사업 28개분야 305억원 등 661억원으로 나타났다.

농촌개발분야 45억원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확충 및 소득보전지원 등 식량작물 분야 313억원 등이다. 시는 28일 농정심의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분석 심의의 결후 전북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변산바람꽃' 서식지 일부 개방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4월 15일까지 변산반도 깃대종인 '변산바람꽃' 서식지 일부를 개방한다.

일찍 개화하는 야생화다. 공원사무소는 "야생화 훼손이나 불법 유출 등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변산 탐방지원센터(063-584-7807)에서 출입증을 받으면 된다. <전북취재본부=윤길호기자 y2011@>

Table with 2 columns: Organization/Person and Phone Number. Includes '光州日報 전북취재본부' and various news desks like '군산 박금석 국장', '전주 김철수 국장', etc.